



전주보훈요양원, 노인복지병원과 업무협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김신) 전주보훈요양원 개원 준비단(단장 박진기)은 지난 13일 전주시노인복지병원(법인이나 정숙회)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보훈요양원은 입소자의 70% 이상이 치매 대상자인 만큼, 이날 치매 전문 요양병원인 전주시노인복지병원과의 협약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의료정보 제공 ▲의료진 방문 진료 등을 수행하게 된다.

박진기 개원준비단장은 “치매 대상자의 비율이 큰 전주보훈요양원이 전문 요양병원과의 협력으로 필요한 지원을하게 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안효초 약제부장, 복지부장관 표창

전북대병원, ‘제50회 보건의 날’ 국민건강 증진 공로 인정

전북대학교병원(원장 유희철)은 안효초 약제부장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0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안 약제부장은 전북대병원에 임상약동학 업무를 도입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약품 사용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액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인 및 소아용 복약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난 1997년부터 퇴원환자 복약지도업무에 적용하는 등 효율적인 환자복약지도의 토대를 쌓



았다.

약무정보팀장으로 재임 중에는 효율적인 약품 관리에 일익을 담당했으며, 병원 내 의약정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의료진의 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성을 제고하게 하여 국정감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그는 전북대학교 병사단원으로서 각종 의료봉사에 참여해왔다. 지난 2007년부터 생명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RB) 전문위원,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평가위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민족혼선양회, 김제노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사)민족혼선양회(회장 이종주)는 14일 김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노기보)에 위기노인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편편데이’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편편데이’는 거동이 불편하여 복지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우울감으로 인해 외부활동이 거의 없는 어르신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적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이다.

김제노인종합복지관은 2021년부터 (사)민족혼선양회 지원으로 실태비문 내 거주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편편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였고, 올해에는 후원금 증가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우울한 마음을 치유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민족혼선양회 회원인 김제희원 박덕순 대표가 원예치료 프로그램 재능기부강사로 활동하고 있어 더욱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민족혼선양회 이종주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과 고독감이 높은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위안을 드리고 일상생활에 즐거움을 드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노기보 관장은 “원예활동 프로그램 참여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정과 정서적 안정을 느끼는 뜻 깊은 시간이 되어가고 있다.”라며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북전주농협, 조합원·자녀 21명 장학금 전달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14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조합원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조합원 및 자녀 21명에 대해 2022년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북전주농협은 농업·농촌 발전의 밑거름이 될 훌륭한 인재의 육성과 경제적으로 열악한 농업인 조합원의 가계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향상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조합원 및 조합원 자녀 등 총 21명에게 100만 원씩 2천·백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우광 조합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연대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북전시업 주진으로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농협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김정옥 명예교수, 전북대 발전기금 60억원 ‘통 큰 기부’

전북대학교 김정옥 명예교수가 최근 60억 원의 발전기금을 대학에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김 명예교수가 지금까지 기부한 80억 원은 전북대 발전기금 역사 이래 개인이 기부한 최대 금액이다.

이에 따르면 김 명예교수는 올해 20억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0억씩 4년간 40억을 기부할 예정이다. 이는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관련 시설 개선하기 위함이다.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전북대 사범대학 독어교육과에 재직하다가 건국대 독어독문과에서 명예퇴직을 한 김정옥 명예교수는 모친의 유지를 이어 후학 양성을 위해 다양한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 명예교수는 최근 대학 연구부총장을 거쳐 발전기금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관우 명예교수를 통해 지역의 대표적 문화·시설인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이 시설 개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이를 매우 안타까워했다. 삼성문화회관의 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의 예술문화 네이션스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을 기꺼이 담았다.

이에 전북대발전기금재단은 이 기금을 ‘영산 김정옥 교수 발전기금’으로 명명하고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시설 개선 등에 꾹꾹게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6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관우) 의결을 거쳐 시설 개선 종료 시점에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대공연장을 김정옥 교수 영산

홀로 할 계획도 발전기금 세부지침에 담겨 있다. 김정옥 명예교수는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소중한 뜻을 이어나가기 위해 제2의 고향인 전주와 전북대를 위해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며 “지역 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의 인프라가 개선돼 지역민과 대학 구성원 모두 문화예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 신임 교수들, 대학발전기금 400만원 기부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14일 신임 교수들이 마음을 모아 대학발전기금 4백만원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영어교육과 김경민·과학교육과 김현태·사회교육과 신재준·초등교육과 이립 교수는 지난달 1일자로 전주교대에 새롭게 임명됐다.

4명의 신임 교수들은 기탁식에서 “이번 기부를 통해 대학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에 함께하며 꽤 기쁘다”며, “우리 대학의 발전은 물론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한 초등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박병춘 총장은 “학문 탐구 정신과 더불어 나눔과 배려의 모습은 학교와 사회에 큰 귀감이 된다”면서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격려와 응원을 토대로 더욱 발전하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교육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서는 학생들의 장학금과 교수들의 연구 지원 등에 발전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역사문화연구소 대표, 무주자봉센터에 기부품 전달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는 14일 한국역사문화연구소 대표(박용수)로부터 두우85박스(110만원)을 저소득층을 위한 기부품을 전달받았다.

전달받은 기부품은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밀반찬지원사업 매월2회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석진숙회장)에서 계절이제 및 상성한 재료를 활용하여 밀반찬 27개를 만들어서 대상자 85가구에 전달되는데 이번 밀반찬봉사활동은 한국부인회(미경우)에서 메주리일 장조림과 무생체무침으로 진행되고 85가구에 두우와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역사문화연구소 대표(박용수)는 밀반찬배달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봉사자로서 ‘배달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다 보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이 많이 났다. 나의 작은 기부가 어르신들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진안홍삼 홍보대사 가수 현숙 위촉

진안군은 14일 진안군청 부군수실에서 진안홍삼 홍보대사로 가수 현숙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현숙은 2년간 진안홍삼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효녀기수로 알려진 현숙은 1979년 데뷔해 ‘요즘 여자 요즘 남자’ 사랑하는 영자씨, 이별 없는 부산정거장’이라는 노래를 발표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전국 농촌 지역을 둘며 10년 넘게 어르신들에게 목욕봉사를 하고 목욕 치료까지 지원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치매홍보대사 KBS 가요무대에 출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창열 부군수는 “대중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현숙 씨를 진안홍삼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꽤 기쁘다”면서 “진안홍삼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진안홍삼 홍보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숙은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 유일 홍삼특구에서 나는 진안홍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지역자활센터, 어르신 가구 방역 소독활동

완주군 지역자활센터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전체 어르신 택을 방문해 방역소독활동을 벌이고 있다.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역자활센터는 지난달부터 매주 1회 씩 어르신 택에 방문해 집 전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호흡기 안전을 위해 인체에 무해한 순한 소독약으로 어르신의 손이 많이 닿는 부분,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곳까지 구석구석 꼼꼼히 소독하고 있다.

소독을 진행한 생활지원사는 “코로나19가 끝나는 날까지 방역소독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며 “빨리 코로나19 상황이 끝나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고 밝혔다. /원주=김기두 기자

남원시, 36개월 이하 영유아 공휴일 원정 진료 지원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에서는 출산지원사업 일환으로 36개월 이하 영유아에게 공휴일에 나서는 원정진료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는 관내 소아과기 일요일·공휴일은 휴무함에 의한 것으로, 긴급 원정 진료 교통비를 지원해 의료접근성 제고로 영유아 건강보호 및 출산지원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36개월 이하 영유아로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관계 없이 병·의원 및 달빛병원(응급의료기관 제외)에서 진료를 본 경우이며, 영유아 1명당 1일 1회 3만원(연 최대 36만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신청서, 등본, 진료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갖추 시 보건소(063-620-7942)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공식 인증서 교부받아

대한청소년보호선도회(회장 임종근) 신하기구인 전북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지난 14일 전리부도와 전주시의 자격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교부받았다.

이는 행정관령으로부터 도내 청소년들의 권리신장과 학교밖 청소년들의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 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유해환경 현장순찰감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시정요구 △청소년 보호 세미나·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현장순찰활동을 하며 청소년유해환경정화에 필요한 실태파악 및 자료수집하고 있다. 특히 모니터 활동을 통해 영상매체, 인쇄매체 유해시설, 유해물품, 청소년유해시설 감시단 운영을 운영하고 있다.

임종근 중앙회장은 “앞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권리신장에 앞장서고 학교밖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정화활동에 감시단회원과 함께 동참하고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